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11호 2002.4.10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 고홍길/편집인: 조영기/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 전화788-2371 7 FAX:788-3560 4

제35회 정기총회

협회는 2002년 2월 2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기타 사항 등을 부의안건으로 다루었다.

이날 총회는 위임참석을 포함하여 총 재적회원 중 약 75%가 참석한 가운데 권영찬 총무이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李熙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인터스테노총회 참석 등 지난해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002년에도 역사의 증언자라는 긍지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본인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속기계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힘을 실어 주어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총무이사의 회무와 사업실적 보고에서는 협회의 지도감독기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어 신회동 이사장이 주재한 이후 회의에서는 2001년도 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회원들의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2001년 5월 문화관광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 및 재산관리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전주시의회의 손상범회원이 지방의회와 협회가 좀더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내에 공식적인 의견교환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박정호 회원은 지방의회 회원들의 지위향상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해 주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행자부와 접촉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지방의회속기사의 일반직화가 꼭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협회 내의 공식적인 의견교환 창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한편, 총회 개최 직후 있었던 제9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상미, 홍효민, 이경진 회원에 대한 상장수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총회참석을 위해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에 대한 이사장의 감사 인사와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제35회 정기총회는 무사히 끝을 맺었다.

제185차 이사회 소식

제189차 이사회가 1월 17일 오전 10시 34분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총무이사로부터 ▲비영리법인 규제완화 관련 정관변경요구서 접수(01. 5. 21) ▲법인에 대한 행정권한 이관(문화관광부→서울시)(01.11.28) ▲2001년도 결산 자체감사 실시(02.1.15) 등의 보고를 받고 이어 3건의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번째로 가항인 제35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2월 2일(토) 오후 1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어서 나항인 2001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8,948만 744원의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김창진 감사로부터 감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사장이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음으로 다항인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1억 2,556만 244원의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당 협회의 국고보조 예산요구액 6,185만 5,200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좀더 노력하고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3월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국제부의 현안인 인터스테노 아시아(한·중·일)회의 결성과 관련된 보고를 들었고 한·중·일 3국 간에 더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덕진 사업부장으로부터 협회비 인상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김난희 홍보이사로부터는 속기사의 신조 개정을 건의받았으며, 김점동 이사는 향후 속기사의 비전 검토와 후배 양성에 대한 관심제고, 또 속기자격시험 주관에 대한속기협회로 이관하자는 제의를 해 주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 11시45분에 산회하였다.

「일본의회 기록부 제3과장 일행 국회방문」

우스바 타케시 기록부 제3과장을 비롯한 3명의 일본의회 기록부 일행이 대한민국 회의록 작성에서 CAT(Computer Assisted Translation) 시스템 이용에 대한 조사차 3박4일 일정으로 방한, 지난 4월 3일 2시경에 국회를 방문했다.

향후 컴퓨터속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미 컴퓨터속기를 도입한 한국의 사례를 보고 배우기 위해 방한한(일본은 현재 수필속기사만으로 회의록을 작성) 우스바 타케시 과장 일행은 국회를 방문하여 기록심의관실에서 홍순관 기록심의관, 신희동 속기1과장, 김창진 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국회 속기과의 개략적인 현황설명,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답변, 컴퓨터속기 시범 시간을 가졌다. 약 3시간에 걸쳐 CAT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한 우스바 타케시 과장 일행은 본회의장을 참관한 후 다음 일정인 서울시의회 방문을 위해 오후 4시 30분경 국회를 떠났다.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교수(시모타니)의 국회 방문」

지난 1월 18일 오후 3시경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시모타니 교수가 제자인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 정안기 박사와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경제학 교수이지만 평소 속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시모타니 교수는 신희동 이사장, 홍순관 이사, 이승철 국제이사와 함께 한 자리에서 양국의 속기 발전과정과 향후 기계속기로의 방향 전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본회의장을 관람했다.

각 부 소 식

■ 사업부 ■

■ 속기학술세미나

사업부에서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2002년도 제10회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집중적 워드 입력작업으로 인한 VDT증후군 연구」 등이며 장소 등 세부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 연구위원회 ■

■ 속기연구논문집 발간사업

협회에서는 속기연구논문집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영국 의회의사록의 지침서인 헨서드 책자의 번역본을 발간·배포하였다.

올해는 속기실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참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자격심사위원회 ■

■ 속기경기대회

2002년도 제10회 속기경기대회가 속기학술세미나 첫날에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대회 방식이 바뀌어 3인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르게 된다.

시상내역으로는 1위 50만원 상당, 2위 40만원 상당, 3위 30만원 상당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처는 대한속기협회자격심사위원회(02-788-2475)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 회원부 ■

■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워크숍

지난 3월 30일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있었다. 협회에서는 이주성 회원이사, 이경식 사업이사 그리고 이동준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제4대 지방의회 개원에 따른 속기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희창 강사의 강의와 이주성 회원이사의 진행으로 정보화시대의 회의록 작성방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총무부

■ 총회 및 정기보고

지난 2월 2일 제35회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으며 올해부터 협회는 서울시의 감독을 받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게 되어 2월 20일 법인정기업무 보고서를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다.

국고보조금 확정

지난 3월 21일 4,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다.

일반직화 건의

3월 27일에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의회 속기사의 일반직화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홍보부

■ 속기계 발간

새롭게 구성된 홍보부의 첫 번째 속기계가 2001년 12월 31일에 발간되어 지난 2월 5일부로 발송이 완료되었다.

건의문 전달

대한속기협회는 3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지방의회 속기사의 일반직화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번 건의문에서 협회는 의회의 회의기록은 회의의 전 과정을 기록한 의정사의 사초이며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작성하는 속기사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속기사는 전문적인 발언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며 또한 수년간의 속기술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일반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기능직으로서는 유능한 인재확보가 어려우며 재직 속기사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지방의회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일반직(행정직군 속기직렬)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문 제출 시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회 속기사 400여 명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함께 제출했다.

회 원 동 정

☆ 승진 · 축하합니다.

- 김창진(국회사무처)/속기사무관→서기관, 속기1과 편집담당(02.2.01)
- 이경식(국회사무처)/속기사무관→서기관, 속기1과1담당(02.2.01)
- 이미정·조선욱(국회사무처)/속기주사→속기사무관대우(01.12.24)
- 김영서·심은주·황우영(대구달서구의회)/8급→7급(02.1.08)
- 김지숙·박소연·윤미영·이수경·최혜련·한연미(국회사무처)/속기서기보시보→속기서기보(02.2.27)

☆ 전보 · 수고하세요.

- 홍순관(국회사무처)/속기1과장→기록심의관(02.1.31)
- 신희동(국회사무처)/속기2과장→속기1과장(02.2.01)
- 박정호(국회사무처)/속기1과 편집담당→속기2과장(02.2.01)

☆ 명예퇴직 · 수고하셨습니다.

- 하양배 부이사관(국회도서관)/(02.2.28)

☆ 복직 · 반갑습니다.

- 이한경(국회사무처)/속기1과(01.11.08)

☆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 성천영 기록심의관(국회사무처)/공로연수(02.2.01~02.6.30)
- 정순화·박금선 회원(국회사무처)/단기해외연수(01.12.20~29)

☆ 입학 · 축하합니다.

- 이주성 서기관(국회사무처)/명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과정(02.3)

☆ 결혼 · 축하합니다.

- 조순재(강원도의회)(02.3.24)

확! 바뀌었다면서요?

제10회 속기경기대회 소식 들으셨나요?

경기방식이 확 바뀌어서 3인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른다는군요.

우와! 상금도 꺾충 뛰었네요.

1위 50만원 상당, 2위 40만원 상당, 3위 30만원 상당으로 예정.

접수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상금에 눈이 어두운, 아니 속기경기대회에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속기협회자격심사위원회(02-788-2475)로 문의하세요.